‘제2공항 갈등’ 중점관리한다는데…

도, 정책·사업·허가로 갈등 빚는 54개 사업 조사

갈등 지수 높은 사업 해결책 ‘원론적 수준’ 그쳐
오등봉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신규 갈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개발사업과 비자림 확·포장 공사 갈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소 방안은 ‘지역발전 방안 마련’, ‘보완 후 공사 재개’ 등 원론적인 계획만 수립돼 실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주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 허가 등을 대상으로 ‘갈등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갈등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54개 사업이었다. 이 중 갈등지수가 70% 이상(210점)인 제2공항 개발사업(260점)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260점), 비자림 확·포장 공사(210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중점관리대상에 오를 사업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원론적으로만 수립돼 실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먼저 제2공항의 경우는 ▷공항 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방안·공동체 유지·도민이익창출 방안,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지구지정 계획(안) 보완 완료시 검토 후 절차 이행 검토, 비자림 확·포장 공사는 ▷환경저감대책 이행 및 보완설계 완료 후 오는 11월 공사 재개 등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는 계획안을 만드는 단계일 뿐이다. 향후 실질적으로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는 사회협약위원회 개최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중점관리대상이었던 ▷제주 동물테마파크 ▷한림해상풍력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소송이나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부서자체관리’로 전환됐다. 아울러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함덕 공감센터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복층화 사업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등이 신규 갈등사업으로 분류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지역화폐로… 제외된 아이들 포함”

도의회 교육위 ‘희망지원금’ 부대의견 조건 통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편성한 ‘제2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놓고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여전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해소될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총 8억13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앞서 심사 과정에서 지급대상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치성 이벤트’ 등의 쓴소리를 들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 88억원은 조정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위는 부대의견으로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3~5세 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주도청과 협의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희망지원금 사용시 지역화폐 활용 등 지급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8만8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제2회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해 제외됐던 유치원(만 3~5세 누리과정)이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또래인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와 학교밖 청소년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인 제주도의 부담이 불가피해졌는데, 관련해 교육청이 제주도정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도정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코로나19, 학력 저하 가져왔다

교육부 “작년 평가결과 중3·고2 기초학력 미달 늘어”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주요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수준의 공식 통계로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결손이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중3·고2 대상)를 보면 교과별 성취수준에서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을 이해하는 보통학력(3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전년대비 중학교 국어·영어와 고등학교 국어에서 감소했다.

중학교 국어와 영어는 각각 75.4%, 63.9%로 전년 대비 7.5%p, 8.7%p, 고등학교 국어는 69.8%로 전년 대비 7.7%p 하락했다.

반면 기초학력 미달(1수준)은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중학교 국어와 영어는 각각 6.4%, 7.1%로 전년 대비 2.3%p, 3.8%p,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는 각각 6.8%, 13.5%, 8.6%로 전년 대비 2.8%p, 4.5%p, 5.0%p 상승했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학습 결손이 누적돼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중3과 고2 가운데 3%를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시행·결과 발표는 유지하면서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서 원하는 평가 시기와 과목을 자율적으로 정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지원 대상 학년(초3~고2)은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비들의 먹이사냥 2일 제주시 조천읍 남생이못에서 제비들이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여름이 왔네”… 온열질환 주의보 발령

최근 5년간 제주서 397명 쓰러져
119, 2일부터 ‘폭염구급대’ 운영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제주소방이 폭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제주소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제주에서는 온열질환자 397명(사망 3명)이 발생했다. 질환별로 보면 열탈진이 2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경련 105명, 열사병 44명, 열실신 25명 등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및 논·밭이 19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제주 온열질환자 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보면 10.4명으로, 전남 11.2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제주소방은 이번 주의보 발령을 시작으로 32개의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차에는 얼음 조끼·팩, 생리식염수, 주사세트 등 9종의 폭염 대응장비를 구비했다. 또 온열질환 의심환자가 119에 신고할 경우 응급의료 상담과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안내에도 나서고 있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폭염 시에는 수분섭취와 휴식 등 유형별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며 “사고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119로 신고해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소방 대원의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오늘 강풍 동반 비 날씨

기상청 “시간당 20㎜ 폭우도
3~4일 최고기온 22~26℃ 전망”

3일 새벽부터 밤까지 제주지역에 최대 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3일 오후 10시까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며 “특히 산지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2일 예보했다.

3일 오후 10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와 남부, 동부는 30~80㎜이며 제주 북부, 서부, 추자도 지역은 10~40㎜다.

비와 함께 바람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3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초속 8~13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서도 초속 10~16m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3일 아침 최저기온 19~20℃, 낮 최고기온 23~26℃이며, 4일은 아침 최저기온 16~18℃, 낮 최고기온 22~24℃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짧아 차량 운전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송은범기자